

## ■ 2026년 대한민국공연예술제(음악분야)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6년 대한민국공연예술제(음악분야)
- 회의일시
  - (1차 서류심의) 2025년 12월 11일(목) 14:00~18:00
  - (2차 인터뷰심의) 2025년 12월 18일(목) 9:30~18:00
- 회의장소 : 대학로 메이플레이스 호텔 컨퍼런스룸 1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노승림, 손창우, 신호경, 임기현, 최원선, 한경진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지원사업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초공연예술 행사를 지원하여 우수 공연예술 발표 기회를 제공, 다양하면서도 질 높은 공연예술의 기반을 구축하고 국민들의 공연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음악분야는 사업 및 장르별 접수 비율을 고려해 지난해 959백만 원보다 238백만원이 증가한 총 1,197백만원이 예산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올해 지원금 심의에는 모두 27개 단체 중 행정결격 2건을 제외한 25개 단체를 심의하여 이 가운데 소규모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규모가 4건, 대규모가 3건을 차지하였으며, 총 신청금액은 4,343백만 원에 달했습니다. 심의위원단은 1차 서류 검토를 통해 이 가운데 14개 단체를 선정하여 2차 인터뷰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전체 신청 규모의 과반 이상의 단체를 2차 심의 대상으로 선발한 이유는 지원 신청서만으로는 가늠이 어려운 각 신청단체의 잠재력을 대면 심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더욱 다양한 축제에 지원의 기회를 주고자 했던 심의위원단의 공통된 의지 때문이었습니다.

2차 심의에서는 최근의 활동실적과 상근 행정인력, 조직위원회 구성 유무를 통한 시스템의 지속가능성, 예산의 체계적인 집행을 통한 사업의 실행가능성, 대중과의 소통과 확산을 위한 홍보전략 등을 중점적으로 질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심의위원단은 사업별 특수성과 고유한 가치에 대해 파악하고자 했으며, 무엇보다 타 공모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예산이 배정되는 만큼 얼마나 타당하고 공정하게 집행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타 공적재원의 확보 유무, 자원 확보가 어려울 경우의 대비현황, 과거의 실적, 외부후원 등을 확인하여 본 사업 수혜 여부에 따른 구체적 예산 계획도 꼼꼼하게 질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종 선정된 8개 축제는 표방하는 장르가 각기 다양하고, 다년간의 축제 운영을 통해 이미 충분히 독자적인 브랜드를 구축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지원 대상이었던더라도 본 사업 취지와 적합성과 실적을 다시 한번 검토해 선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였으며 지원 결정액에 반영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상당수의 신청단체들이 독자적인 정체성과 기획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를 대중 향유로 연결시킬 홍보 및 소통 전략 측면에서는 차별성을 나타내지 못한 점은 향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민들의 공연예술 향유 기회 확대”가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인 만큼, 이는 선정단체는 물론 향후 지원할 단체

들이 함께 고심해야 할 숙제라고 여겨집니다. 본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신 모든 단체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선정된 단체들에게는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심의위원 일동